광주 자미갤러리서 '오월사진전' 독일인 마티아스 라이씨

"그날의 민주화 열정 함께 공감하고 싶었다"

"5·18 사진전을 열면서 전시장을 찾은 광주시민들에게서 뜨거운 민주화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자미 갤러리에서 5·18 사진전을 열고 있는 독일인 마티아스 라이(Matthias Ley·45·일본 도쿄)씨. 일본에서 프리랜서 사진가와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라이씨는 지난 17일부터 이곳에서 '리멤버링(Remembering) 광주 오월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조비오 신부·상무대 등 21점

전시 작품은 모두 21점. 조비오 신부·박남선 시민군 대장·홍성담 화가·강길조씨 등 인물과 옛 전남 도청·옛 망월 묘역·상무대 등 5·18 사적지를 현재의 시각으로 담았다.

1년 6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친 그는 지난해 10~12월, 올해 2~3월 두 차례 광주를 방문, 인물과 사적지 등 65점을 앵글에 담았다.

이 작업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한국인인 아내 김정희(39)씨의 도움이 컸다.

라이씨는 1987년 일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독일인 친구로부터 5·18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다. 옛 망월묘역에서 통곡하는 유가족과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당하는 시민군들의 처절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5·18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5·18 증언록을 비롯한 5·18 일지 등 관련 서적을 읽으며 5·18을 이해해 갔다.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결국 '광주 오월 사진전'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5·18 사진전의 인기는 대단했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100명. 연령층은 5·18을 직접 겪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작품마다 눈길을 떼지 못했다. 당시 옆집 아저씨·형과 누나들이 겪은 충격과 공포, 고통과 시련의 세월이 떠오른 탓인 지 관람객들은 몸서리 치며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저 아저씨 아는 분인데" "우리 아빠 친구인데" "옛 전남도청이잖아" "어, 상무대 아닌가?" 등 라이씨의 작품을 본 관람객들의 반응은 '공감' 그 자체였다.

日·獨서 같은 주제 전시회 계획

"전시회장을 찾은 광주시민들을 보고 민주화의 열정을 느꼈다"는 라이씨는 민주화의 '씨앗'이 된 5·18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 같은 주제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라이씨는 "전시회장에서 본 광주시민들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 찼다"며 "최근 5·18의 민주적 가치가 일부에 의해 왜곡되는 것 같은데, 숭고한 5월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신대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광신대학교(총장 정규남)는 최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400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학과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광신대 제공〉

이창동 '시' 칸영화제 각본상 영예

태국 '엉클 분미' 황금종려상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가 23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3회 칸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 감독의 5번째 영화인 '시'는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할머니이자 삶의 종착역을 눈 앞에 둔 60대 여성 미자(윤정희)가 시 쓰기에 도전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주인공 윤정희의 16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국내에서 화제가 됐다.

이로써 이 감독은 2007년 '밀양'으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긴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각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한국영화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감독상을 수상한 2002년 이래 이번이 5번째다.

한국영화는 2002년 감독상을 시작으로 2004년 '올드보이'(박찬욱 감독)가 심사위원대상, 2007년 '밀양'(이창동 감독)이 여우주연상(전도연), 2009년 '박쥐'(박찬욱 감독)가 심사위원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칸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태국의 아피찻퐁 위라세타쿨(39) 감독의 '엉클 분미'(Uncle Boonmee Who Can Recall His Past Lives)가 차지했다. 태국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금호그룹 시련 안듯 박삼구 회장 위로 힘 내라는 격려 체온으로 전해 줬다"

故 이순정 여사의 자식 사랑

"할머님은 어둠 속에서 아드님(박삼구 그룹 명예회장)의 애틋한 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간의 노고와 걱정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는 격려를 체온으로 전해주었을 것이고…"

지난 12일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 부인 고(故) 이순정 여사〈사진〉의 애틋한 자식사랑을 보여주는 일화가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에서 이 여사를 보필해 온 금호고속 김성산 대표는 최근 회사 내부 홈페이지에 올린 '할머님이 남기신 사랑'이라는 글에서 이 여사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의 효성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 여사에 대해 "모든 어머님들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을 싫어하지만 할머님의 경우는 특별했다. 자녀들을 염려하고 배려하시는 마음을 나로서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생전에 매일 아침 아들의 문안전화를 받기 전에 일어나 세면하고 머리를 곱게 빗고 옷을 갖추어 입었다고 한다. 아침이 되면 아들의 전화를 받은 후에야 다음 일을 했고, "서울에 계셨을 때에는 연인을 만나시듯 문안인사를 받으셨다"고 김 대표는 적었다.

지난해 이 여사가 광주에 머물 때 박 명예회장은 그룹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주말이면 광주에 내려왔다고 한다. 이 여사 곁에 앉아 안마해 드리고 눈길 맞추고 위로해 드렸다고 한다. 김 대표는 "아드님이 가시고 나면 할머님은 그룹의 일도 바쁘고 복잡하니 그만 내려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라고 나에게 자주 부탁하셨다"며 "아드님이 어려움을 애써 숨기셨어도 아마 할머님은 우리 그룹의 시련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할머님과 자녀들 간의 공경과 배려, 사랑과 효심을 지켜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도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고객님을 모신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광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별세

재야변호사 출신으로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광일 전 실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고인은 지난 88년 13대 총선 당시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에 의해 정치권에 입문했고, 13대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며 청문회 스타로 두각을 나타냈다. 대표적 'YS맨'으로 불렸던 고인은 1995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1년2개월간 YS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비서실장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문수미씨와 아들 성완, 성우(수원지방법원 판사)씨 등 2남이 있다. 빈소는 부산좋은강안병원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10시. 051-610-9677. /연합뉴스

삼양그룹 김상홍 명예회장 별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기업인 삼양그룹의 김상홍 명예회장이 23일 오후 10시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8세.

삼양사 창업주인 선친 김연수(1896~1979) 회장의 7남6녀 중 3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3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상과, 1945년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나왔다. 유족으로 부인 차부영 씨와 아들 윤(삼양사 대표이사 회장), 량(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겸 삼양사 사장)씨와 딸 유주, 영주씨 등 2남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은 27일. 연락처 02-3010-2631. /연합뉴스

전 KIA 투수 호세 리마 심장마비 사망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투수 출신으로 2008년 국내 KIA에서 뛰었던 호세 리마가 23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37세.

2008년 국내리그에 진출한 리마는 KIA에서 3승6패, 방어율 4.89의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그해 7월 구단을 떠났다. /연합뉴스

'그냥 걸었어' 가수 임종환 별세

1990년대 '그냥 걸었어'로 사랑받은 가수 임종환이 지난 23일 오전 7시 직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45세. 임종환은 가수활동을 접은지 12년 만인 지난해 복귀, 트로트 싱글 음반 '사랑이 간다'를 발표하고 활동했으나 3~4개월 전 직장암을 발견하고 투병해왔다.

빈소는 경기도 일산병원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수원 연화장 내 납골당이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1남 1녀가 있다. 031-932-9171. /연합뉴스

인사

◆광주은행

◇본부장 승진 ▲업무지원본부장 겸 총무부장 박종광

◇본부장 이동 ▲자본시장본부장 겸 투자금융부장 송종욱 ▲서울영업본부장 정기복

◇부·점장급 이동 ▲인사부장 김환진 ▲여신심사부장 강정태 ▲ PB복합사업부장 장영미 ▲운남동지점장 고대현

배우 장혁 보해 복분자주 광고 모델됐다

보해양조(주)는 24일 "한류스타인 배우 장혁을 복분자주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혁은 최근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를 쫓는 추노꾼으로 열연한 배우다.

그는 5월 말부터 TV와 인쇄매체를 통해 복분자주를 홍보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장씨는 광고에서 '오늘 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라는 카피를 통해 복분자주를 홍보한다.

보해 관계자는 "장혁의 준수한 외모와 남성미가 복분자주의 특성과 잘 맞아 홍보모델로 발탁했다"며 "한류스타인 장혁을 내세워 젊은층을 공략하고 중국·일본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신현직·김지영씨 장남 성철군 조정래(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장)·이현주씨 장녀 아라양=피로연 28일(금)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 결혼식 6월12일(토) 오후 6시30분 서울 논현동 빌라드베일리.

▲김 완(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윤해경씨 장남 지하군 김병식·이돌심씨 장녀 진희양=29일(토)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홀)

▲서석철·정남이씨 장남 영욱군 박제범·이순금씨 차녀 주화양=30일(일)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동창·동문회

▲손불초등학교 39기(회장 임준호) 동창회=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머리재식당. 017-601-5866(총무박종성)

▲조대부중 23기(야)=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머리재식당 062-225-8252(구성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모집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혼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 육성교육생 모집=26일(수)~6월3일(목)까지 모집, 'POP예쁜글씨·풍선아트' 각 분야 15명씩, 전문기술 습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선착순 모집. 062-228-1365.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 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 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 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게·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퓨엔터 살사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충장로 3가 충파 앞 더바디샵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 모집=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부음

▲이정순씨 별세 박광희·홍수·희균·은미·미경·미례씨 모친상=발인 26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심권섭씨 별세 용호·용진씨 부친상=발인 2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김말엽씨 별세 채명진·장수·문수·정심·정애·정숙·순덕씨 모친상=발인 25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재길씨 별세 형근·미성·미란·미경씨 부친상=발인 25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이석종님 (남/71세)
주/주婦 이광영/김영숙
女/婿 이민영/오광준
이진영, 이선영/장창수
호 실 호실 101호
발 인 06월 26일
장 지 대전 현충원
故 조덕님님 (여/85세)
주/주婦 이용길/이재순, 이춘호/정옥순
이동열/정숙향, 이동선/김경미
女/婿 이순학/강재섭, 이숙학/박찬대
이현미/박영만
호 실 호실 201 호
발 인 06월 26일
장 지 나주노안 선영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합상조
가입문의 1688-3740